

“아비농 축제 능가하는 광주만의 축제 만들겠다”

청년, 청년을 말하다

〈1〉황민형 ‘공연창작소 아라리엔’ 대표

‘헬조선’, ‘흙수저’에 따른 절망하지만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것이 ‘청춘(靑春)의 특권이다. 곁들이 더딜지라도,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그들이 있어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 청년들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다부진 삶과 꿈을 연재한다. 청년 기자 4명이 필진으로 참여한다. <편집자주>



▶극단 '아라리엔' 황민형 대표와 단원들.



황민형 대표

어린 시절,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었드려 퍼즐 조각을 맞춰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여기,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퍼즐이 있다. 사직공원에서 펼쳐지는 ‘아트 퍼즐’이다.

‘아트 퍼즐 인 사직’(Art Puzzle in Sajik)은 다채로운 공연예술이 각기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이 돼 전체 공연을 완성하는 무대다. 광주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깃든 사직공원에서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공연이다. 사직공원이라는 공간적 테마를 낭독극과 인형극, 국악, 어쿠스틱 밴드 공연, 독립영화 제작 및 상영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로 풀어내고 있다.

이 공연을 기획한 ‘공연창작소 아라리엔’ 황민형(30) 대표는 “연습실 주변인 사직공원을 걷다 곳곳에 아픈 역사와 추억, 사라진 흔적 같은 수많은 사연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고 느꼈다”며 “딱딱하고 어려운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재밌게 사직공원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기획해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3년째 아라리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는 대표 이전에 연극배우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극단 ‘청춘’에 입단해 12년 넘게 배우로 활동했다. 연기는 물론, 연출, 희곡, 무대 설치 등 연극에 필요한 전 분야를 섭렵했다.

그가 연극배우를 꿈꾸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이다. 당시 연바람 씨어터에서 친구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연극을 봤다. 평소 무뚝뚝하던 친구가 그 연극을 보더니 한참을 울었다. 연극이 끝난 후 많은 위로가 됐다고 고맙다는 말까지 전했다. 친구는 얼마 전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연극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연극배우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죠.”

이후 연극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배우는 것과 쓰고 싶은 무대 사이에서 괴리를 느꼈다. 그때 극단 ‘청춘’에서 수습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면접을 보러갔다. 면접은 순탄치 않았다. 불합격을 직감하자 눈물이 터졌다.

그 모습을 본 극단 대표는 “일단 나와보세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면 극단으로 달려가 살다시피 했다. 입대 3일 전까지 순회공연을 하고, 휴가를 받으면 제일 먼저 극단으로 향했다. 말년휴가를 나와서도 손에 대본을 쥐기 시작해 전역 3일 후부터 공연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 쉽지가 않았지만, 행복

뛰어난 예술가 없는 아비농 축제 시민 힘으로 세계3대 예술축제로 광주엔 더 뛰어난 공연 많아

28살에 극단 '아라리엔' 창단 아리랑의 '아라리'+연희의 '연' 연극 토대 무용·국악·밴드 등 다양한 장르 융합 예술적 교감

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작업을 하며 배우고 싶었죠.”

황 대표는 2015년 2월 ‘공연창작소 아라리엔’을 창단했다. 그의 나이 28세 때였다. 처음에는 1인 대표 체제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뜻을 같이하는 단원이 늘기 시작해 지금은 7명의 단원과 함께하고 있다.

아리랑의 ‘아라리’와 연희의 ‘연’자를 붙여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 앞에 ‘공연창작소’를 더했다. 연극이라는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장르적 융합을 통해 공연창작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그 이름처럼 연극을 토대로 무용, 국악, 클래식, 밴드 등 각 분야에 경계를 넘나들며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적 교감으로 실험적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2월 공동예술극장에 오른 연극 ‘벽장 속의 아이’는 소설을 각색해 만든 연극이다. 지난 10월에 연바람 씨어터에서 선보인 뮤지컬 ‘바다에 꽃이 피다’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들을 추모하며 황민형 대표가 직접 대본을 쓴 작품이다.

청년문화기획자이자 극단을 만든 젊은 대표인 그는 “광주에는 양질의 공연들이 많다”며 “세계 3대 예술축제라고 불리는 프랑스 아비농 축제에 다녀와서 깨달은 게 있다”고

말했다.

“동행한 사람들과 소규모 극을 만들어 거리공연을 했어요. 워낙 유명한 축제라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수준과 질로 보면 광주가 뒤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비농 축제가 세계적 축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바로 시민들 때문이었어요.”

문화융성 도시는 예술가뿐 아니라 시민의 동참으로 이뤄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 문화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들이 더 좋은 공연을 만들고, 문화적 수준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시민들이 믿고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이 황 대표의 과제다.

그는 연극배우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말리고 싶다”고 했다. 현실의 고단함과 연습의 강도 때문이다. 그래도 연극을 하고 싶다면, 꿈은 7 : 3의 비율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다.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싫어하는 것을 견뎌야한다는 뜻이죠. 연출이나 배우뿐 아니라 음향, 조명, 무대 등 다방면의 전문가 영역에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문가들을 있는 다음 세대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치있는 물건을 보여달라는 말에 낡은 상자를 꺼내 보여줬다.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받은 게런티가 들어있던 봉투와 선배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이었다.

연극계 선배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떠오른 시상을 써서 교환한 쪽지도 있고, 자신의 게런티를 넣어주며 용돈으로 챙겨준 선배의 흔적도 담겨있다. 한 통의 편지를 읽던 그는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엇보다 우리 단원들이 저에게 가장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죠. 최옴똘, 김성관, 최효주, 정나일, 이준형, 박솔기, 손다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청년기자 tarajay@naver.com

-기억관소 프로젝트 운영
-작가·필명 '타라재이'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금’엔 ‘아트 퍼즐 인 사직’

- 16일 ‘흔적’서 유니버스 영화
- 23일 팔각정 With 어쿠스틱 밴드
- 30일 피날레 ‘흐르는 풍경 With 어울림’

‘아트 퍼즐 인 사직’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사직공원을 테마로 관객을 찾아가는다.

오는 9일에는 전망타워 야경을 배경으로 프로젝트그룹 ‘온비’가 국악콘서트 ‘전망타워’ With 국악’을 진행하고, 16일에는 예술공간 ‘흔적’에서 광주 영화제작사 빅피쳐 컴퍼니가 사직공원을 배경으로 만든 유니버스 영화를 상영한다.

23일에는 어쿠스틱밴드 ‘멜팅 그루브’가 나서 팔각정 구조물 앞에서 ‘팔각정 With 어쿠스틱 밴드’ 공연하며, 30일 마지막 무대는 전망타워와 옛 팔각정 부지에서 ‘아라리엔’을 비롯해 전체 공연팀들이 참여하는 ‘흐르는 풍경 With 어울림’을 즐길 수 있다.

공연 후에는 아트 퍼즐을 나누어 주는데, 여섯 번의 공연 중 4조각 이상 채우는 관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한편 ‘아트퍼즐 인 사직’은 광주문화재단이 공모한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으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10-8208-0528.

/송재영 청년기자 tarajay@naver.com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